

담양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접수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1인당 50만 원 지원

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 등 지자체 확인 가능 대상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

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

업 확인 및 검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노점상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풀뿌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

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운영 중인 노점상에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정책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영농기 일손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문의

일손 필요 농가·구직자 중개 ... 농촌 인력난 해소 기여

나주시가 본격적인 농번기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홍보에 나섰다.

16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배원예농협, (사)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농작업자 및 구직자의 인력자원(인력풀)을 구성, 인력이 필요한 농가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는 센터로 신청하면 별도 중개 수수료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수송·숙박비, 현장실습교육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 지원은 기초생활 대상자, 고령자, 여성농업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며 농협 조합

원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다. 최초 센터 방문 후 접수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후부터는 일손 알선, 일자리 신청을 우선으로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상시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농번기 치솟는 임금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농가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구직자는 연중 상시근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이용 문의는 농협나주시지부(330-5719), 나주배원예(334-0022), 농어업회의소(336-3472)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순조롭게 진행 중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 동의 4456명 대상 진행



곡성군은 19일 현재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접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356명 중 접종에 동의한 4,456명이 대상이며, 곡성을 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곡성읍권역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16일까지 204명이 접종을 마쳤으며,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수송을 위해 1일 3~4대 수송버스를 각

마을 별로 운행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70여 명을 배치하고 '병찰 작용, 사전 문진표 작성, 반팔 착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원활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한편, 유근기 군수는 "집단면역이 조속히 형성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 '첫 삽' 떴다

진입로 접속도로 공사 착공

장성군이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인 장성읍 하이패스IC(도로 교차부) 신설의 첫 발을 내디뎠다. 군은 최근 하이패스IC 진입로 접속도로 공사의 착공에 들어갔다.

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을 주요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조속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애초 하이패스IC 전·출입로 지정 선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았지만, 장성군은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갔다. 그 결과, 지난해 전·출입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연결 승인, 한국도로공사 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사업은 하이패스IC 신설과 장성군의 사업분인 진입로 접속도로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이패스IC 진입로(국도교차로→출입로→고속도로)와 진출로(황미르랜드→방구다리 회전교차로) 조성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맡는다. 계획된 사업비는 군과 공동 부담(군 47억원, 공사 43억원)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장성군이 맡은 보해앞삼거리~국도교차로 접속도로 조성 공사는 최근 '첫 삽'을 떴다. 사업비는 20억원 규모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준공이 목표다.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의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무렵으로 예상된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인구정책 한 곳에...사업 모음집 제작

연령대별 인구정책 담은 안내서 배부...8대 분야 96개 사업 안내

화순군이 14일 군에서 시행하는 연령대별 인구정책을 한 데 모은 '2021년 인구정책 사업 안내' 모음집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출산·양육 관련 사업 안내 내용으로 제작한 기존 리플릿을 올해 확대 개편해 모음집을 제작했다. 모음집에는 출산·양육뿐만 아니라 청년, 어르신 등 전 연령층에 필요한 인구 관련 사업 내용이 담겨있다. ▲임신·출산 ▲양육 ▲아동·청소년

▲다자녀 ▲청년 ▲어르신 ▲귀농·귀촌 ▲기타의 8대 분야에 96개 사업이 수록됐다.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자료집 한 권으로 필요한 사업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화순군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보건소, 마을회관 등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모음집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자료 모음집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인구정책을 확인하고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시설하우스 온풍기 LPG 구입비 지원

사업비 4천8백만원 투입

구례군이 금년부터 시설하우스 가스 온풍기 사용 농가에 LPG 가스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섬진강 범람으로 인하여 시설채소 난방유류 보관 중이던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과 하천 등 농업 환경이 오염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구례=박진호기자

본 사업은 금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사업비 4천8백만원을 가스 온풍기 사용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5월부터 가스 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시설하우스 온풍기 가스 구입비 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업 환경보전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으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